

《노걸대》, 《박통사》류 이본들의 ‘거/어’에 대하여 -종결형 ‘거다/어다’를 중심으로-

석주연*

1.

중세국어의 ‘거/어’는 상당히 특이한 존재로 알려져 왔다. 동작류의 성격에 따른 상이한 분포도 그렇거니와 종결형, 연결형, 명령형 등 상당히 넓게 나타나는 그 분포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아우를 의미와 기능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연결형의 그것은 제쳐 놓고라도 명령법, 감동법 등에서의 같이 문장의 말미 부분에 공통적으로 분포하는 ‘거/어’에서조차 어떤 통일된 기능을 추출해 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거/어’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문법형태소로서 문법화 경로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따진다면 이미 15세기에서조차 상당히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존재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즉 15세기의 ‘거/어’조차도 문법화에 의해 본래적 성격을 많은 문맥에서 상실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고려시대 구결자료에 나타난 ‘거/어’의 모습이 ‘거/어’의 본래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편, 우리에게 15세기 이전의 ‘거/어’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위와 같은 구결자료 뿐 아니라 15세기 이후의 ‘거/어’의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많은 근대국어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될 것

* 서울대 강사

이다. 변화의 말단과 그 방향을 추적하는 것 역시 변화 이전의 15세기의 ‘거/어’의 본질을 규명하는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문법사를 추적하는 일종의 회고적 방법의 성격을 띠는 것이거나 ‘거/어’의 문법사를 체계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해 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16세기 이후의 종결형에서의 ‘거/어’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거/어’ 문법사의 한 조각을 구성해 보려고 한다.

많은 근대국어의 자료 중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노걸대》, 《박통사》 등의 중국어 회화 자료는 회화자료라는 자료의 구어에 가까운 성격 뿐 아니라 비교적 세기별로 중간이 고루게 이루어진 몇 안되는 균질적 자료에 속하기 때문에 이본들 비교시 문법사 기술을 위한 자료로서 지니는 가치가 상당하다. 이 중에서 본고에서는 주로 이본들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걸대》의 이본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박통사》의 이본들을 참조하고 우선 종결형 어미에 분포하는 부정확인법이라 일컬어졌던 예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우선 이러한 예들을 살펴 보는 것은 이것이 다른 문맥, 특히 감동법 등에 나타나는 ‘거/어’의 의미와 기능을 밝히는 데에도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노걸대》에서 ‘거’가 통합된 설명법어미, 즉 고영근(1980)에서 부정확인법이라 일컬었던 형태들은 비교적 빈번하게 출현한다. 특히 초간본의 경우에는 동작류적 성격, 즉 어간의 타동성 여부에 따른 ‘거/어’의 교체도 비교적 충실히 지켜지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초간본 이외의 본의 경우에도 16세기 이후 다른 환경에서의 ‘거/어’의 혼란에 비교한다면 ‘거/어’가 실현되는 한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규칙에 따른 형태를 보인다. 다음의 예들¹⁾을 살펴보자.

1) 본문에 제시된 a, b, c, d, e, f, g의 예는 각각 차례로 《변역노걸대》(1510년대), 《노걸대언해》(1670년), 《평양판 노걸대언해》(1745년), 《노걸대신석언해》(1763년), 《청어노걸대》(1765), 《봉어노걸대》(1790), 《중간노걸대언해》(1795년)의 예를 가리킨다.

(1)

- a. 이 몰들 다 머겨다 <상 37a>
- b. 이 몰들 다 물 머겨다 <상 33b>
- c. 이 몰들 다 물 먹여다 <상 33b>
- d. 이 몰 다 물 먹어다 <상 46b>
- e. 다 물 먹여 므춧다 <3:2a>
- f. 이 몰 다 물 먹여다 <2:24b>
- g. 이 몰 다 물 먹어다 <상 33b>

(2)

- a: 자바다 <상 46a>
- b: 자바다 <상 41b>
- c: 자바다 <상 41b>
- d: [해당 문장 없음] <상 58a>
- e: 오나 제요 혀 잡아다 <3:15a>
- f: 잡아다 <3:11b>
- g: 잡아다 <상 42a>

(3)

(가)

- a: 짐시리 다 호아다 우리 녀져 아히야 네 사발 덥시 권즈 가져 지비 가라
너 슈고호연더 허물 말라 <상 46a>
- b: 짐싯기 다 호아다 우리 네자 아히야 네 사발 덥시 탕권 가져 집의 가라
너 슈고호여다 허물 말라 <상 41b>
- c: 짐싯기 다 호여다 우리 네자 아히야 네 사발 덥시 탕권 가져 집의 가라
너 슈고호여다 허물 말라 <상 41b>
- d: 짐 다 미야 시러다 우리 죠히 가자 아히야 네 사발 덥시 탕관 가져 집의
가라 너를 슈고시겨다 네 허물 말라 <상 58a>
- e: 형야 네 사발 덥시 가져 집의 가라(3:15a)
- f: 짐 싯기 다 못차다 우리 가자 아히들 네 사발 덥시를 가져가라 네 슈고
호야 허물말라(3:11b)
- g: 짐 다 미야 시러다 우리 죠히 가자 아히야 네 사발 덥시와 탕관 가져 집
의 도라가라 너를 슈고시겨다 네 허물 말라 <상 42ab>

(나)

- a: 이 물들 다 머겨다 <상 37a>
- b: 이 물들 다 물 머겨다 <상 33b>
- c: 이 물들 다 물 머여다 <상 33b>
- d: 이 물 다 물 머여다 <상 46b>
- e: 다 물 먹여 므춌다(3:2a)
- f: 이 물 다 물 머여다(2:24b)
- g: 이 물 다 물 머여다 <상 33b>

(다)

- a: 이 은 다 보과라 나는 뵈 헤여 가져가노라 <하 64a>
- b: 이 은 다 보아다 나는 뵈 헤여 가져가노라 <하 58a>
- c: 이 은 다 보아다 나는 뵈 헤여 가져가노라 <하 58a>
- d: [해당 문장 빠짐]
- e: 이 은을 네 다 보와시니 내 이제 뵈 헤여 가지자 <8:13a>
- f: 이 은을 다 보아다 내 뵈 헤여 가져가노라 <8:12b>
- g: 이 은을 다 출혀시니 뵈 조수혀 가지자 <하 60a>

위의 (1-3)의 예는 타동사어간에 ‘어’가 통합된 예들인데 이러한 경향이 후대본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환경에서의 ‘어’가, 특히 접속어미 등의 그것이 ‘거’쪽으로 통일을 겪고 ‘거’와 상당히 혼란을 겪을 시기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일관성은 상당히 주목되는 것이다. 뒤에서도 다시 논의 되겠지만 이 환경에서 상대성 용언에 통합되는 ‘거’도 《노걸대언해》이후 다른 표현으로 바뀌는 경우를 제외한, 적어도 ‘거/어’가 실현된 《번역노걸대》에 한해서는 용언류에 따른 통합양상에 있어서 상당히 규칙적인 모습을 보인다.

(3)과 같은 경우 이러한 ‘어’의 고수는 부사 ‘다’와 관련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어간의 타동성 여부에 따라 15세기의 ‘거/어’가 교체된다는 논의를 잘 알고 있다(고영근 1980). 동사 활용에 표지되는 타동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타동성’이라는 특징 자체에 대한 일반성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Hooper&Thompson(1982)은 ‘타동성’을 상당히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가지 특징을 이 부사 ‘다’가 상

기시키는 것이다. 앞서의 논문은 타동성을 정도성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한편, 타동성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로서 피동작주의 완전한 영향받음성을 상정하고 있다. 즉 피동작주가 완벽하게 남김없이 동사에 의해 영향받을 때 문장의 타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피동작주가 복수인 경우엔 그 모든 구성원이 표지된 동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타동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3)의 경우는 ‘어’가 통합되기에 꼭 적절한 경우라는 것이 드러난다. 부사 ‘다’에 의해 동사에 의한 완전하게 영향받음이 표지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꼭 ‘다’와 같은 부사가 통합되지 않은 타동사 어간의 경우에도 ‘어다’가 통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피동작주의 동사에 의한 완전한 영향받음성 역시 문장에 실현되는 타동성의 한 조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²⁾

앞서의 논문은 타동성을 결정하는 또 한가지의 요소로 유정성(agency)과 관련한 것을 들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동작주가 동작주보다 유정성의 측면에서 위계상 낮은 곳에 위치하면 문장의 타동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동작주가 유정성이 높은 존재일수록 그보다 낮은 유정성을 가진 존재의 상태나 행동 등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나 행위를 부가하여 피동작주에게 가해지는 동작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직접 다루는 《노걸대》류의 예는 아니지만 15세기 자료와 이를 중간한 16세기 자료로서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자료에서 보이는 다음의 예는 충분히 흥미를 끌 만하다.

(4)

(가) 국에 네 소니 데어냐 흐니 <번소 10:2>

(나) 국이 네 손을 데거냐 <소학 6:102>

위의 예중 《번역소학》의 예는 기존의 논의를 따르더라도 ‘거’가 통합됨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걸대》, 《박통사》류의 종결형에서 ‘어’가 출현하는 다수의 예에 부사 ‘다’가 빈번하게 출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편, ‘타동성’에 관한 위의 논문은 ‘타동성’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다수의 결정요소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문장 내의 Participants, Aspect, Punctuality, Volitionality, Affirmaness Mood, Agency, Affectedness of Object, Individuation of Object 등이다.

있어 원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는 예이다. 그러나 이에 대당하는 《소학언해》의 예는 동작주가 부정명사로서 주어로 실현되어 있으며 피동작주 '손'(유정명사의 신체 일부)은 대격어로 실현되어 있어 표면상 타동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가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소희(1996) 등은 이를 '거/어' 표지실현의 불규칙성의 한 예로 설명하고 있으나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동작주의 유정성 위계상의 위치가 피동작주인 '내 손'(유정명사의 신체 일부로서 '유정성'의 위계에 있어 부정명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위계상 서열이 낮은 부정명사가 동작주로서 주어로 실현되어 있고 '내 손'은 피동작주로서 대격어로 실현됨으로써 전체 문장의 타동성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어' 대신 '거'가 실현되는 것을 이렇게 타동성 결정의 한 요소를 이루는 문장성분의 유정성 위계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특히 '거/어' 교체와 관련하여 '타동성'이라는 개념을 꼼꼼히 되짚어 볼 필요를 느끼게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이 논문에서 주요 관심사로 삼는 것은 종결형에 분포하는 '거다/어다'의 '거/어'이다. 고영근(1980)에서 부정확인법이라 일컬었던 이러한 예들은 《노걸대》류 뿐 아니라 《박통사》류에도 상당히 자주 출현하여 이 환경에서의 '거/어'의 의미와 기능을 추적하는 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1-3)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보자.

15세기적 해석(고영근 1980)을 따른다면 시제적 관점에서 (1-3)의 사건시는 발화시 이후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첫째, 이 때 부정법과 부정확인법이라 일컬어지는 형식 간에 시제적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은 '거/어'가 단순히 시제와는 무관여적인 순수한 서법적 의미만을 지닌 것이었느냐 하는 의문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시기에 따라 이본들을 관찰할 때 '어다'와 '거다'가 시간의 추이에 따른 그 대응형에 있어 각기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과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초간본의 '어다'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많은 경우 《중간노걸대언해》와 같은 18세기 말의 이본들에까지 유지되어 있고 다만 18세기 《청어노걸대》, 《몽어노걸대》의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형식에 대한 대응형으로서 '엇다'와 '어다'가 반반 정도씩

섞여 나타나는 반면 초간본의 [+상태성] 용언에 통합된 '거다'는 후대 이본들에 대부분의 경우에 유지되지 않아 이미 《노걸대언해》에 다른 표현(어시니, 엇다) 등으로 대체되어 서로의 대체양상이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거다'의 대체양상에 관해서는 뒤에서 논의될 것임). 혹자에 따라서 이것을, 특히 '어다'의 고수 경향에 대해 《노걸대언해》가 간행될 때 《번역노걸대》를 참고한 결과 전대의 업적을 그대로 묵수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참조의 과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박통사》의 이본들에도 위와 같은 현상은 별다른 바 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음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5)

(가)

이런 전초로 밤송 삼경의 니러 제 문 얕피 가 부르지져 달라호야도 제 채하
는 듯 아니호는 듯호니 더 나귀 어러 나흔 노미 나룰 예도라 든니니 달라 호
안디 반년이나 호더 나룰 갑디 아니호니 내 두 쌍 새휘를 다가 다든녀 하야
브리과라(번박 상34b-35a)

이런 전초로 반야삼경의 니러 더 짐 얕히 기서 불러 달라 호면 데 괴수홀
더 괴수티 아니호고 더 나귀 얼러 나흔 놈이 그저 날을 수머 든니고 달라 호
디 반년이로더 즐겨 내게 갑디 아니호메 내 두 쌍 새휘를 다가 다든녀 해야
리게 호고 (박언 상31b-32a)

이런 연고로 인하여 내 미양 반야삼경에 제 짐 문에 가 저를 츠자 내 곳 성
내여 부르지져 은을 달라 호되 데 막춤내 괴수홀 더 괴수치 아니호고 도로혀
한 호은 거슨 더 나귀씩 그저 나르 수머 든녀 도금 반년을 달라 호되 아조 즐
겨 내게 갑지 아니호니 도로혀 내 새 휘조차 다든녀 해야
브리과라(박신석 1:34b-35a)

(나)

이 글월 쓰과라(번박 상60b)

이 글월 써다(박언 상54a)

위에서 제기된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18세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어 잇'의 문법화가 상당히 진척된 시기라 할 수 있다(최동주 1995). 특히 종결형, 연결형 등의 환경에서 16세기의 《노걸대》 초간본이 이미 17세기의 《노걸대 언해》에서 '(으)니>앗느니'와 같은 변화를 겪은 것은 이와같은 저간의 사정을 잘 반영한다. 즉 15세기에 부정법이 담당했던 '과거 시제'적 기능을 '아시(앗)' 등이 대체한 것이다. 따라서 많은 문맥에서 부정법은 현재시제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생각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위의 예들에서도 《노걸대 언해》와 《박통사언해》부터의 후대본들에서는 '엇' 등의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자료는 '어다'형의 고수³⁾를 대부분 보여준다. 여기서 '대부분'이라 한 것은 특히 18세기 《청어노걸대》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는 '엇다'의 예가 적지 않아 발견됨을 염두에 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론될 것임).

위와 같은 환경에서 15세기에 '거/어'가 시제와는 무관한 범주였다면 '어다'형의 18세기 말엽까지의 고수는 부정법이 종결형 '-다'앞에서만은 온전히 기능을 유지했었다는 설명을 초래하게 한다. 다른 대체 가능한 설명은 이 환경에서의 부정법의 시제적 기능을 '거/어'가 근대 이후 이어받았다는 설명 등이 될 것이다. 어느 설명이나 부자연스럽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우리는 이와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에서 우리가 제기했던 '거다/어다'의 시제적 의의

3) 다음의 예는 이러한 '어다'의 고수가 단순한 의고적 표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준다.

- a: 므리 딛 머근 듯ㅎ다 물 머기라 가져 <상 33b>
- b: 물이 딛 머근 듯ㅎ니 물 머기라 가자 <상 30a>
- c: 물이 딛 먹은 듯ㅎ니 물 먹이라 가자 <상 30a>
- d: 우리 이 물이 여물 먹어다 물 먹이라 가자 <상 41b>
- e: [해당 문장 없음]
- f: 물이 여물을 먹은 듯ㅎ니 물먹이라 가자(2:19b)
- g: 이 물이 여물 먹어다 물 먹이라 가자 <상 30a>

위의 《노걸대신석언해》, 《중간노걸대》의 예는 오히려 전대 본의 표현에는 쓰이지 않은 '어다'를 새로이 쓰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18세기의 '어다'가 의고적 표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몇 가지 자료를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가)

a: 너희 들히 예 오난 디 언머 오라니오 <상 68b>

b: 너희 들히 예 오난 디 언머나 흐뇨 <상 61b>

c: 너희 들히 예 오난 디 언머나 흐뇨 <상 61b>

d: [해당 문장 빠짐]

e: 너희 들히 여기 완지 언머나 오래뇨(5:1a)

f: 너희 들히 여기 완 지 언마 오래뇨(4:17b)

g: 너희 들이 여기 완 지 언머제나 흐뇨 <상 62b>

(나)

a: 우리 ㄹ 예 오라 <상 68b>

b: 우리 ㄹ 여기 오랴 <상 62a>

c: 우리 ㄹ 여기 오랴 <상 62a>

d: [해당 문장 빠짐]

e: 우리 ㄹ 왔노라(5:1a)

f: 우리 ㄹ 밋쳐 오랴(4:17b)

g: 우리 ㄹ 여기 왔노라 <상 62b>

(다)

a: ᄃᄂᆞᆫ 너희 츠즈라 가려 ᄃᄂᆞᆫ 네 또 오나다 <상 68b>

b: ᄃᄂᆞᆫ 너희 츠즈라 가려 ᄃᄂᆞᆫ 네 또 오나다 <상 62a>

c: ᄃᄂᆞᆫ 너희 츠즈라 가려 ᄃᄂᆞᆫ 네 또 오나다 <상 62a>

d: [해당 문장 빠짐]

e: 앓가 나가 너희ᄃᆞᆫ 마즈라 가고져 ᄃᄂᆞᆫ 너희ᄃᆞᆫ 마춤 여기셔 만났다(5:1a)

f: 덩이 너ᄃᆞᆫ 츠즈라 가려 ᄃᄂᆞᆫ 네 또 왔다(4:17b)

g: ᄃᄂᆞᆫ 너ᄃᆞᆫ 츠즈라 가려 ᄃᄂᆞᆫ 네 또 오나다 <상 62b>

(7)

(가)

a: 내 이 둘 초ᄃᆞᆫ날 王京의셔 떠나라 <상 1a>

b: 내 이 둘 초ᄃᆞᆫ날 王京셔 떠난노라 <상 1a>

c: 내 이 둘 초ᄃᆞᆫ날 王京셔 떠난노라 <상 1a>

- d: 내 이 돌 초흐룻날 王京셔 떠났노라 <상 1a>
 e: 내 이 돌 초심에 떠났노라(1:1b)
 g: 내 이 돌 초흐룻날 王京셔 떠났노라 <상 1a>
 f: 내 이 돌 초흐룻날 왕경셔 떠나뢰(1:1f)

(8)

(가)

- a: 네 황호 다 프나 못흐얏느녀 <하 66a>
 b: 네 황호를 다 폰다 못흐얏는다 <하 59b>
 c: 네 황호를 다 폰다 못흐얏는다 <하 59b>
 d: [해당 문장 빠짐]
 e: 너희 화물도 다 프나 <8:15f>
 f: 네 물화롤 다 프랏느나 못흐얏느나 <8:14b>
 g: 너희 貨物을 다 프랏느나 못흐얏느나 <하 61b>

(나)

- a: 우리 황호 다 풀오 정히 도라갈 황호 사려 흐야 헤아림 일덩티 못흐얏드
 니 마치 도히 네 을셔 <하 66a>
 b: 우리 황호 다 풀고 정히 도라갈 황호 사려 흐여 헤아림을 덩티 못흐얏드
 니 마치 도히 네 을샤 <하 59b>
 c: 우리 황호 다 풀고 정히 도라갈 황호 사려 흐여 헤아림을 덩티 못흐얏드
 니 마치 도히 네 을샤 <하 59b>
 d: [해당 문장 빠짐]
 e: 우리 화물도 다 풀앗다 네 이제 의심으로 우리 대외 의논흐여 므슴 화물
 을 사셔 가져 가면 죠호리오 <8:15b>
 f: 우리 다 물화롤 프랏다 덩히 도라가고져 흐여 가져갈 물화 사기롤 의논
 흐거니 맛지 네 왓다 <8:15a>
 g: 우리 貨物을 다 풀고 正히 저기 貨物을 사 도라가려 흐여 商量흐여 定
 치 못흐얏더니 맛치 죠히 네 오나다 <하 61b>

위의 (6) (가), (나), (다)의 예는 같은 장면에서 계속 이어지는 대화들인데 (6)(나)와 (6)(다)의 동사 '오-'에 대한 활용형이 연속된 대화에 달리 나타나 있는 것이 흥미롭다. (6)(나)의 경우 《평양본》까지는 '오라, 오뢰' 등으로 실현되다가 《청어노걸대》에 가서는 '왓노라' 등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중간

노걸대》에도 ‘왓노라’로 실현되었지만 《몽어노걸대》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다시 ‘오랴’형으로 회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유사한 다른 예들을 고려하자면 이 예는 《노걸대언해》에서 정도부터는 ‘왓노라’형이 나타날 것이 기대되는 곳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⁴⁾ 이와 유사한 모든 예에서 우리는 《번역노걸대》의 부정법이 보통 《노걸대언해》에서 ‘엇느’로 실현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6)(나)의 《노걸대언해》 등의 부정법의 예는 의고적 성격의 표기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6)(나)의 예를 관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6)(다)의 경우 《청어노걸대》와 《몽어노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다’형이 실현되어 있다. 특히 《중간노걸대》의 경우에도 ‘-나다’가 유지되어 있는 것은 종결형에 실현된 부정확인법의 다른 문맥의 예들과도 대체로 일치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청어노걸대》와 《몽어노걸대》의 경우에도 모두 ‘나다’는 아닐지라도 ‘-앗느-’가 아닌 ‘앗’이 실현되어 (6)(나)의 경우와 대조되는 것이 주목을 끈다.

우리가 위와같은 비교에서 우선 제기할 수 있는 첫번째 질문은 왜 바로 이어지는 대화들에서, 그것도 같은 동사의 활용형이 달리 실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6)(가)와 (6)(다)의 화자는 같은 사람임에 주의해야 한다). (6)에서 (가)의 화자는 북경에 있는 조선사람으로서 조선에서 자신을 찾아온 (나)의 화자에게 언제 왔는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해 (6)(나)의 화자는 방금⁵⁾ 왔다고 대답한다.

4) 최동주(1995:131)와 (7)(가) 참조.

5) 우리는 ‘갓’이라는 부사에 대해 ‘방금’이라는 해석을 가하였는데 ‘갓’의 해석과 관련하여 《박통사》류의 다음의 예는 참고할 만하다.

네 엇지 앓가사 온다 <번박상 64a>
 네 엇디 갓 온다 <박언 상 57a>
 네 엇지 갓 온다 <박신 2:2a>

아츰딴 지뵈 손 오나날 그를 대접햐야 보내오 갓 오랴 <번박상 64a>
 아츰의 집의 나그니 앓거늘 더를 타발햐여 보내고 갓 올랴 <박언상57a>
 아츰에 집의 나그니 앓거늘 더를 타발햐여 보내고 갓 오니 이러모로 오미 더 되랴라 <박신2:2a>

이에 대해 다시 (6)(가)의 화자는 (6)(나)의 화자에게 (6)(다)에서 (6)(나)의 화자를 막 찾으러 가려는 참인데 지금 (6)(나)의 화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장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첫번째로 주목할 점은 (6)(나)에서 지시된 ‘오-’라는 행동의 시제적 의미와 (다)의 시제적 의미와는 비록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6)(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방금 왔다고는 했지만 그의 도착은 이 장면 이전에 벌써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물론 하루 내에 함께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6)(다)에서 (6)(다)의 화자가 언급한 바로 그 자리에서 (6)(나)의 화자를 만나면서 ‘오나다’에 의해 지시되는 시간과는 다소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다. 즉, (6)(다)의 ‘오-’라는 행위는 발화시 당시의 장면과의 상관성이 아주 명확하게 발견되는 반면 (6)(나)의 ‘오-’라는 행위에는 그러한 상관성을 상대적으로 찾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으며 (6)(나)와 (6)(다)에서는 상대적인 시간 차마저 읽을 수 있다. (6)(나)와 (6)(다)가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차이는 (6)(다)에 의해 지시되는 행위는 화자와 청자가 마주쳐 있는 바로 그 장면(시점)과의 상관성이 매우 분명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원문의 차이라는 것이다. (6)(나)의 해당되는 원문은 ‘我纔到這裏’(우리 ㄹ 에 오라)이며 (6)(다)의 그것은 ‘你去來了’(네 또 오나다)이다. ‘오-’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동사가 전자는 ‘到’이고 후자는 ‘來’라는 차이는 무시할 만한 것이라 한다면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후자의 문장 말미에 ‘了’가 통합된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단 위의 예들뿐 아니라 이외의 다른 많은 예들, 즉, ‘오나다’류의 ‘어다/거다’가 출현하는 문장의 백화문 원문에서의 ‘了’통합 현상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백화문에서 문장 말미의 ‘了’는 일종의 첨사로서 이것이 통합됨으로써 문장 전체가 ‘완료’적 성격을 띠게 된다.⁷⁾ ‘완료’의 본질적 성격은 사태나 상태

위의 첫번째 발화에서 《번역박통사》의 ‘앗가삭’가 각각 《박통사언해》와 《박통사 신석언해》에서는 ‘ㄹ’로 바뀌어 있다. 한문원문의 ‘纔’의 상이한 번역인 것이다.
6) (6)(다)와 문맥상 유사한 예를 우리는 《박통사》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내 본더 호마 너를 청호라 가고져 호더니 마춤 네 오나다 <박통 중 9b>

내 본더 호마 너를 청호라 가려 호더니 네 또 오나다 <박신석 2:18b>

를 기준시점에 관련시키는 것이다. 즉 시간선상의 두 지점간의 관련성을 언급 하되 기준시점이 항상 그 한 지점이 된다. 영어의 현재완료와 과거시제의 기능의 차이를 상기해 본다면 기준시점 이전의 사태가 기준시점(현재)와 관여성이 있을 때에는 전자가 쓰이지만 기준시점 이전의 사태라 할지라도 기준시점(현재)와의 관여성이 없을 때에는 과거가 쓰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완료형을 쓰느냐의 여부는 화자의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화자가 어떤 사태를 기준시점과의 관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완료형을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완료형을 쓰지 않는 것이다.⁸⁾

- 7) 백화문에서 '了'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형태소로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첫번째 것은 우리의 주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항상 문장의 말단에 통합하여 'perfect' 의 의미를 문장 전체에 가하는 첩사로서의 '了'이다. 다른 하나는 'perfective'의 기능을 동사에 가하는 일종의 동사에 대한 접사(affix)로서의 '了'인바 항상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하는 특성을 지닌다(C.N.Li & S.A.Thompson (1981)). 이 두 가지 종류의 '了'는 그 자체의 통시적 발달과정이 주목거리이지만 필자가 과묵한 탓인지 아직 그 상호관계나 역사적 발달의 과정이 자세히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것 같다. 다만 Y.R.Chao(1968)등이 후자는 전자에서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 등을 하고 있지만 두 가지 '了'의 상호 통시적 발달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언어유형론적으로 'perfect'의 'perfective'로의 발달을 보이는 언어는 많지도 반대방향으로의 발달을 보이는 언어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의 추정은 좀더 신빙성을 얻게 된다. 우리의 주논의 대상인 '거/어'에 대응되는 '了'는 문장 말단에 나타난다. 참고로 원문과 함께 다음의 몇몇 예를 더 들어 둔다.

나그내네 닛 신서다(客人們洗面了)(번노 상 61a)

앗가 보뉘 기우로 호야다(纒射的歪了)(번노 하 37a)

벌서 장편수의 문 얹히 다투거다(已到張編修門首了)(박신석 3:55b)

- 8) 우리가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룬 《노걸대》, 《박통사》의 이본에는 모두 18세기에 원문의 개수에 의한 새로운 번역본이 포함되어 있다. 《노걸대신석언해》와 《박통사신석언해》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이들의 원문의 새로운 개수에는 잘못된 표현이나 그 당시 중국어 현실에 맞지 않는 표현들의 교정되어 있는 것이 주목을 끄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원문의 개수에 문말 '了'에 관한 개수가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들이 참고된다.

내 본디 호마 너를 청호라 가고져 호더니 마춤 네 오나다 <박언 중 9b>

내 본디 호마 너를 청호라 가려 호더니 네 또 오나다 <박신석 2:18b>

겨터서 시름 보는 사람들이 널오더 에 더 크 저근 숯술 것구러디거다 <박

백화문에서의 이러한 시제적 차이가 위의 자료에도 동사 활용형의 상이한 실현 양상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환경에서의 ‘거/어’의 기능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일단, 우리가 이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다/어다’형의 시제적 의의가 부정법이 실현된 ‘다’형과 사뭇 달랐다는 것과, 사태를 언급하되 기준시점(여기서는 발화시)과의 관여성이 있으면 ‘거다/어다’형이 선택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세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초간본의 (6)(나)의 ‘오랴’형과 (6)(다)의 ‘오나다’형이 그 후 이본들에 있어서는 각기 대체로 상이한 대체형을 가진다는 것(‘오랴’는 ‘왔노랴’로 ‘오나다’는 ‘왔다’ 등으로) 역시 이 환경에서 일차적으로 ‘오랴’와 ‘오나다’가 가지는 시제적 의미가 달랐다는 점을 한층 더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 문제의 좀 더 자세한 검토를 위해 ‘오랴’형과 ‘오나다’형이 각기 후대 이본들에서 대체된 형식들을 좀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가장 후대본인 《중간노걸대》의 경우 (6)(나)에서는 변화의 대체적 추세(부정법이 -았느-로 나타나는 추세)에 부합하여 ‘았느’가 부정법 대신 선택된 것에 비해 (6)(다)에는 특히 《중간노걸대》에 나타나는 형을 고려한다면 전반적으로는 ‘나다’형이 고수되었으나 좀더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즉, (6)(다)의 경우는 《청어노걸대》와 《몽어노걸대》의 활용형이 각각 ‘았’으로 실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청어노걸대》《몽어노걸대》의 경우에는 ‘어다’가 고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엇다’로

언 중 51b>

에 나중내 너 이 켜 저근 놈이 것구러지거다 <박신석 2:56a>

이 방을 써다 <박언 하55b>

이 방 빼다 <박신석 3:53b>

첫번째 예의 경우 원문개수 이전 원문 말미는 ‘遭是你來也’와 같이 ‘也’로 끝났으나 개수본에는 이것이 ‘你却來了’와 같이 ‘了’로 고쳐져 있다. 두번째예와 세번째 예는 문장 말미의 ‘了也’가 ‘了’로 고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미가 ‘了也’로 끝나는 문장 구조는 대부분 위와 같은 개수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두번째 예는 ‘咳那錢金舍倒了也’가 ‘咳到底是你這幾漢倒了’로, 세번째 예는 ‘這告子寫了也’가 ‘這招子寫了’로 고쳐졌음을 관찰할 수 있다. 개수된 부분을 언해본에 실현된 ‘어다/거다’와 대조해 보면 이 당시 ‘어다/거다’의 기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좀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실현된 예도 상당수에 이른다(1)-(3)참조). 오히려 《청어노걸대》같은 경우엔 문맥에 따라서는 '엇다'형이 약간 우세한 경향마저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6)(다)의 《중간노걸대》의 경우엔 다시 '나다'형이 고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관찰내용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나)의 경우부터 되짚어 보자. (6)(나)의 초간본의 부정법은 대체적으로 《노걸대언해》이후에는 '엇느' 정도로 대체되어 나타난다(7)(가)). 따라서 (6)(나)의 예는 《노걸대언해》의 경우엔 상당히 보수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정법의 변천에 관한한 (7)과 같은 자료를 보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같은 환경의 다른 예들이 모두 '엇느'를 포함함을 염두에 두고 《노걸대언해》의 이 '엇느'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동주(1995:149)에서는 이 경우의 '느'를 종결법의 경우 '엇'의 문법화 이후 상황을 제시하는 화자의 위치, 즉 시점이 발화시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뜻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재해석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화자가 사태를 지시하는 시점을 지시하는 기능만을 하는, 즉 현재시제적 기능을 다분히 상실한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느'의 기능을 약화된 채로 본다 해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느'없는 '엇'이 부정법을 대체한 예는 적어도 《노걸대언해》까지는 꽤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종결형에서 '느'없는 '엇'은 적어도 《노걸대언해》정도까지는 많은 경우 홀로 과거시제적 기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환경에서 '엇느'의 '엇'은 완전

9) 《박통사언해》에서도 '엇느'의 유지는 도처에서 나타난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엇다'형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노걸대언해》에 비해 《박통사언해》엔 '엇느'의 '느'가 탈락한 '엇다'와 같은 형식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긴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는 《박통사언해》의 언해자들이 《번역박통사》를 참조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박통사언해》의 '엇다'는 언제나 비1인칭 주어, 특히 3인칭 주어의 문장에 나타나며 1인칭 주어의 문장에는 언제나 부정법형이나 '엇느'가 유지되었던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될 점은 전대본을 참조하지 않은 《박통사언해》에서도 전체적인 분포상으로는 '엇느'가 유지된 형식이 우세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엇느'의 유지는 18세기에서도 적지않이 확인된다. 다음의 예를 참고로 제시해 둔다.

태의 여귀 왔닌이다 <박통 중 14b>

비 그쳤느냐 <박통 중 51a>

히 문법화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에 ‘ㄴ’에 대한 구조적 의존성이 너무 높은 존재였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7)(가)에서 우리는 18세기의 《청어노걸대》, 《몽어노걸대》등의 18세기 문헌도 문맥에 따라서는 이 ‘엇ㄴ’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를 보여준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문법화의 진행에 따라 물론 이 ‘엇ㄴ’의 ‘엇’은 홀로 독자적 기능을 하게 되긴 하지만 적어도 모든 문맥에서 그러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18세기 이후로는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엇ㄴ’의 후속형인 ‘엇’은 18세기 이후에나 그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엇ㄴ’에 비해 수적인 면에서 다소 적다고 말할 수 있다. 즉 18세기 문헌조차도 ‘엇ㄴ’이 유지된 경우가 ‘엇’ 단독으로 출현한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가 ‘엇ㄴ’ > ‘엇’의 주요하고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점이다. (8)(가)는 ‘엇ㄴ’이 포함된 의문형구조체를 보여주는 데 이에 대한 응답인 (8)(나)는 《청어노걸대》, 《몽어노걸대》를 중심으로 ‘엇다’형을 보여주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제 (6)(다)의 경우로 논의를 옮겨 보자. (6)(나)의 《청어노걸대》에 ‘엇ㄴ’이 실현되어 있는 것과 (6)(다)의 《청어노걸대》에 ‘엇’이 실현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대조되는 측면을 보인다. 전자는 전대형 유지한 반면 후자는 전대형인 ‘-나다’를 대체한 모습을 보인다. 역시 인접한 대화의 같은 동사의 활용형에 다른 활용형을 쓴 것은 그들의 대조되는 기능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경우와 달리 (다)의 《청어노걸대》의 ‘엇다’가 ‘나다’의 기능에 준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국어의 ‘엇’의 예들 중 다분히 완료적 해석을 허용하는 예들의 기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엇’ 자체는 어

비 개엇다 <박통 중 51a>

네 官人이 어덧 벼슬을 제호엿느뇨 <박통 하 13b>

光祿詞 경을 제호엿느니라 <박통 하 13b>

내 날회여 인가 첨하롤 조차 길홀 굴히여 오랴 <박통 중 51b>

내 날회여 인가 첨하롤 조차 길홀 굴히여 왔노라 <박신석 2:56b>

디에서 연원한 것이며 왜 이러한 대체 양상을 보이는 것일까?

물론 이 완료적 '엇'의 기원을 15세기 의 '어 잇'외에 다른 곳에서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 잇'의 어떠한 성격이 이렇게 '거다/어다'의 '거'와의 관련성을 가져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15세기의 '어 잇'이 기본적으로 기준시점에서의 '지속' 등을 전제로 한 시제범주였다는 것을 상기해 볼 수 있다(최동주 1995).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어 잇'의 문법화의 진전은 의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속의 의미를 전체 구성에 가하는 '잇-'보다 '어' 앞의 사태에 더 무게중심을 두게 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무게중심 이동이 완벽해지는 단계에서 '엇'의 (과거시제로의) 문법화는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법화의 진전 과정 중에는 문법화의 초기 단계 보다는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선행사태에 가 있지만 여전히 기준시점과의 연관성이 포착되는 단계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보여주는 기능은 다름 아닌 '거다/어다'의 '거/어'의 기능에 근접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어다'를 대체한 《청어노걸대》의 '엇다'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문법화 과정 중에 있었던 '엇'의 기준시점 관련성이 '거/어'의 기준시점 관련성과 연계되는 것, 이것이 '거/어'와 '엇'과의 연관성과 그 대체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논의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18세기는 '어시(엇)'의 문법화나 '거다/어다'의 변화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종결형에서의 '엇'의 '엇'이 일부 문맥에서 '엇'으로 나타나 본격적이며 독자적으로 과거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어다'가 '엇다'로 합류를 시작한 시기('어다'와 '엇다'의 공존 초래)¹⁰⁾이기도 했기에 결국 종결형에서 과거시제와 완료를 표지하는 형식을 단일한 형식으로 합류시켜 버린 결과를 초래하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한가지는 뒤에서도 논의되겠지만 '거다'의 경우에는 물론 《노걸대언해》 단계에 이미 '엇'등으로 대체되었으나 이 '엇'이 여전히 19세기까지도 여전히 지속의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다.¹¹⁾ 18세

10) (6)(다)의 《청어노걸대》, 《몽어노걸대》 에 참조

11) 19세기까지도 [+상태성] 용언 뒤의 '엇'이 지속의 의미를 지녔다는 것은 이현희 (1993), 최동주(1995)등에서 잘 지적된 바 있다.

기에, 혹은 적어도 17세기 말의 《노걸대언해》까지는 모든 문맥에서 유지가 확실했던 ‘어다’가, ‘엇다’로 합류하기 시작하여 결국은 부정법에서 온 ‘엇느’의 후대형인 ‘엇다’와 표면적으로는 형식이 같아지지만 많은 문맥에서 상태성 용언에 통합된 지속의 의미를 지니는 ‘엇’과 평행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준시점 관여성이 그 관계 유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청어노걸대》나 《몽어노걸대》보다 후대본인 《중간노걸대》에 의외로 고집스럽게 고수되는 ‘어다’형의 존재를 문헌의 보수성을 반영한 것으로만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¹²⁾

네번째로 주목되는 점은 지금까지의 논의와도 관련이 되겠지만 (6)(가)와 (6)(나)는 서로 질문과 응답의 관계를 이루는 반면 (6)(다)는 그러한 관계선 상에서 벗어난 발화라는 점이다, 이것은 ‘거다/어다’형이 실현된 대부분의 예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거다/어다’가 쓰인 문맥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질문에 의한 응답인 경우가 없다.¹³⁾ 18세기에 출현하는

- 12) 18세기의 문헌인 《청어노걸대》, 《몽어노걸대》는 ‘엇다’의 출현에 있어 상당히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다’의 세력이 만만치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
- 13) ‘거의’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필자가 찾을 수 있었던 예외가 한둘 정도 있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다음의 질문과 응답의 예를 보자.

우리 오^느 이바디에 언^넛 수를 먹거노 <번노 하 39a>
 우리 오^느 이바디에 언^넛 술을 먹거노 <노언 하 35b>
 우리 오^느 이바디에 언^넛 술을 먹어노 <평노 하 35b>
 우리 이 잔치에 언^머 돈에 술을 먹으노 <청노 7:6a>
 우리 이 잔치에 언^마 술을 먹엇느니 <몽노 7:5b>
 우리 오^느 이바지에 언^넛 술을 먹으노 <중노 하 38a>

은 두 량^잇 수를 먹거다 <번노 하 39a>
 두 냥 은^엿 술을 먹거다 <노언 하 35b>
 두 냥 은^엿 술을 먹어다 <평노 하 35b>
 두 냥에 술을 먹엇다 <청노 7:6 ㄱ>
 두 냥 은^에 술을 먹어다 <몽노 7:5 ㄴ>
 두 냥 은^에 술을 먹엇다 <중노 하 38a>

위의 예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거다/어다’ 형이 쓰인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어다'의 대체형인 '엇다'의 경우에까지 이러한 대체적 경향은 계속된다. 이에 비해 '부정법' <엇느 > '엇'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는 문맥은 질문에 대한 응답인 문맥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것은 18세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18세기에서조차 '어다'를 대체한 '엇다'와 '엇느다'에서 연원한 '엇'은 형식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상의 동일성은 상정되기 힘들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엇'이 상대성 용언에 통합된 경우는 그 당시 결코 과거시제로 해석될 수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18세기의 '엇'은 두 가지 종류의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엇느'의 후속형으로서 과거의 기능을 지니며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도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었던 과거의 '엇'과 '어다/거다'의 대체형으로서 기준시점 관여성을 지닌 완료적 기능을 했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거의 출현하지 않는 분포를 보이는 완료의 '엇', 이 두가지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국어에서 '엇'이 완료적 해석

이러한 예조차 그 질문이 '엇느'를 포함한 의문형구조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어'를 포함하고 있는 의문의 구조체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위와 같은 예는 '거다/어다'중 대다수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거/어'의 본래적인 성격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랜 통시적 과정을 거친 결과 나타난 파생적 성격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문형에 분포한 '거/어'가 《청어노걸대》를 기점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주목되는 점일 뿐 아니라 이러한 소멸의 양상이 보수적인 《중간노걸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이채롭다. 다음의 예에서도도 의문형에 분포하는 '거/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답이 감탄형으로 끝나고 있음이 주목된다(이에 대해선 후에 따로 논의될 것임).

- 이튿날 의원이 와 무로더 네 저그나 도커너 <번노하 41a>
 이튿날 太醫 | 와 무로더 네 저그나 도커너 <노언하 37a>
 이튿날 太醫 | 와 무로더 네 적으나 도커너 <평노하 37a>
 오늘 와서 네 맥을 잡아보니 평상호여 고로매 속이 2장 뭉앗다 네 몸을 네 모로라 어제에서 엇더호노 <청노7:8b>
 이튿날 의원이 와 무로되 네 적이 나오나 <몽노7:8a>
 이튿날 太醫 와 무르되 네 적기 나오나 <중노하 39b>
- 오늘 아츰디 ㄹ 죽 머구니 저기 도호애라 <번노하 41ab>
 오늘 아츰에 ㄹ 죽 먹으니 저기 도해라 <노언하 37ab>
 오늘 아츰에 ㄹ 죽 먹으니 적이 도해라 <평노하 37a>
 울타 오늘은 어제에서 만히 나애라 <청노7:9ㄱ>
 아츰에 ㄹ 죽 먹고 저기 나앗다 <몽노7:8ㄴ>
 오늘 아츰에 ㄹ 저기 죽 먹으니 저기 나애라 <중노하 39b>

을 허용하는 예의 기원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기준시점 관련성을 보이는 ‘어다’의 예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사실 이러한 연관성을 무엇보다도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것은 [+상태성] 동사에 ‘거/어’가 통합된 예들이다.¹⁴⁾ 이 환경에서의 기준시점 연관성이라는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9)

a: 새벼리 높거다 하늘도 흐마 불가 가는다 우리 물 모라 가 하츄에 가 짐 들 설엇노라 흐면 마치 불그리로다 이 물들 다 미야 두라 더 돌흠 히야 닐에 흐라 <상 58ab>

b: 새별이 노파시니 하늘도 흐마 불그리로다 우리 물 모라 가 하쳐의 가서 짐들 收拾 흐노라 흐면 마치 불그리로다 이 물들을 다 미야 두고 더 돌흐로 흐야 닐게 흐라 <상 52b>

c: 새별이 높하시니 하늘도 흐마 붉으리로다 우리 물 모라 가 하쳐의 가서 짐들 收拾 흐노라 흐면 마치 붉으리로다 이 물들을 다 미야 두고 더 돌흐로 흐야 닐게 흐라 <상 52b>

d: [해당 문장 빠짐]

e: 새별이 높하시니 하늘이 거의 붉게 흐여시니 물을 모라 하쳐의 가져 가 집을 출출 즘음에 반드시 붉으리라 물을 미야두고 저 두 벼을 닐게 흐라 (4:10a)

f: 새별이 높하시니 하늘이 흐마 붉으리라 우리 물을 잇그러 가자 하쳐에 가 짐을 출히노라 흐면 채 붉으리라 이 물을 다 미야 두고 저 돌흠 닐게 흐자 (4:5a)

g: 새별이 높하시니 하늘이 흐마 붉으리라 우리 물을 모라 下處에 가 行李 收拾 흐노라 흐면 그저 저프건대 하늘이 곳 붉으리로다 이 물을 아직 미고 저 들로 흐여 닐게 흐라 <상 53b>

(10)

a: 히 정히 나지니 저기 덜다 아츰뵈 믄 른 것 머그니 목믄 른 줄 잇다 얕피 아니 머리 흔 초개로 지은 덤이 잇느니 메 가 우리 두서 잔 수를 머저 목믄 른 더 해 완고 즘 승 쉬오더 잠 판 더디나 짐 브리왔다가 두서 잔 술 먹고 믄 득 디 나가져 <상 62b-63a>

b: 히 정히 나지니 저기 덜다 아츰의 믄 른 것 먹 으니 저기 목믄 른다 얕피

14) 이 환경에서 ‘기준시점 관련성’의 특징이 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용언의 성격이 [+상태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속을 기본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니 멀리 혼 초가로 지은 덩이 이시니 데 가 우리 두어 잔 술을 먹어 목므런
 디 해왔고 증싱 쉬오디 잠판 덧이나 짐 브리웠다가 두어 잔 술 먹고 므득 디
 나가자 <상 56ab>

c: 히 정히 나지니 적이 덩다 아춤의 므런 것 먹으니 적이 목므런다 알화
 아니 멀리 혼 초가로 지은 덩이 이시니 데 가 우리 여러 잔 술을 먹어 목므런
 디 해왔고 증싱 쉬오디 잠판 덧이나 짐 브리웠다가 여러 잔 술 먹고 므득 디
 나가자 <상 56ab>

d: [해당 문장 빠짐]

e: 히 정히 낮임에 7장 덩다 오늘 아춤에 므런 것 먹었기로 그저 목므런다
 여기서 머지 아닌 남편에 혼 초가점방 이시니 저기 니르거든 여러 잔 술 먹고
 목므런 거슬 누기고 증싱을 적이 쉬여 다시 가자(4:16a)

f: 히 정히 낮 되여시니 저기 덩다 아춤에 므런 것 먹음으로 저기 목므런다
알호로 머지 아닌 곳에 혼 초점이시니 저기 가 우리 목므런디 식훤케 여러 잔
 술을 먹자 이 증싱을 쉬워 잠판 짐부리오고 술 먹어 뭇춘 후에 즉시 시러 가
 자(4:10a)

g: 히 낮이 계엿다 저기 더움이 잇고 저기 므런 것 먹어떠니 저기 목므롬이
 잇다 알호로 머지 아니케 혼 초가店이 이시니 체 가 우리 여러 잔 술 먹어 解
 渴하고 증싱 쉬오고 잠판 行李 부리오고 여러 잔 술 먹고 또 가자 <상 57ab>

(9)의 《노걸대언해》 이하의 이본들의 예는 [+상태성]용언에 ‘어시’가 통합
 되어 연결어미 ‘-(으)니’에 연결된 예들이다. 최동주(1995)에서도 지적되었듯
 이 이 환경에서의 ‘어시’의 문법화는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초에 이르러야 문
 현상 확인된다. 즉 ‘어시’의 지속, 혹은 완료적 기능은 꽤 늦은 시기까지 지속
 되는바 따라서 위의 ‘노프시니’에 의해 기준시점(이 경우 현재)에서의 지속이
 나타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문장은 ‘높아져 있다’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문
 장인 것이다. 최동주(1995)에서는 ‘노프시니’와 같은 예를 단순히 상태지속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와 차이를 보이는데 《번역노걸대》의 예
 가 ‘눕거다’로 되어있다는 점은 ‘노프시니’¹⁵⁾가 단순히 상태지속만을 나타내는

15) ‘어시’가 상태성 용언에 통합되었을 때의 해석이 단순한 상태지속이 아니라는 것은
 ‘어시’의 기능을 완료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관점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어시’
 의 기능을 그와같은 것으로 보았을 때 ‘노파시니’, ‘7득하야시니’와 같은 예의 해석은
 ‘높은데’, ‘가득한데’ 식의 해석이 아니라 ‘높아져 있는데’, ‘가득하여져 있는데’ 정도의
 해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될 때 ‘노파시니’와 ‘노파니’의 의미의 차이가 포착될

요소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단 위의 예들 뿐 아니라 상태성 용언에 통합된 많은 다른 예들도 일관되게 그와같은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역시 위의 예들의 원문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설명의 정당성이 한층 더 분명해진다. (9)의 원문에는 말미에 역시 ‘了’가 통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백화문의 문장 말미의 ‘了’가 완료적 기능을 했던 사실을 (9)의 예에서도 어김없이 상기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10)의 문장 원문엔 이와같은 ‘了’가 통합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9)의 ‘눅거다’와 (10)의 ‘답다’가 어떻게 대조되는지 잘 보여준다. 이것은 《변역노걸대》 당시 ‘거다’의 기능 즉, ‘거다’가 단순한 기준시점(위의 경우 발화시)의 상태성 지속에 대한 언급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준시점 이전의 상태성, 혹은 기준시점 이전의 상태성 돌입의 사태와 기준시점의 상태성의 관여성을 언급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기본적으로 상태성이란 지속을 그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성이란 모두 현재 이전의 상태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떤 시점(기준시점)에서의 상태성을 언급할 때 담담히 그 기준시점에서의 상태성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기준시점 이전의 그러한 상태성으로의 돌입, 변화와 그 지속(즉 기준시점 관여성)을 언급할 수도 있는 것이다. (9)이 후자의 예라면 전자의 예는 (10)이 될 것이다. (9)과 (10)의 ‘눅거다’와 ‘답다’의 대조, 또 그 각각의 이본들에서 보이는 ‘거’의 유무에 의한 대조를 설명하는 길은 위와 같은 입장을 전제할 때에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같은 설명은 ‘기준시점(위의 예에선 발화시) 관여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거다/어다’의 시제적 기능에 있어서의 평행성을 설명해 주는 장점을 지니기도 한다. 즉 ‘거다’가 통합됨으로써는 발화시 당시의 사태가 언급되는 반면 ‘어다’가 통합됨으로써는 발화시에 선행한 사태가 언급된다는 설명이 함축하는, 같은 범주가 보이는 시제적 의의의 불균형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거다/어다’에서 보이는 기준시점 관여성이란 것에 대해 덧붙여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6)의 (다)의 예도 (나)와 대조되는 ‘기준시점 관여성’이라는 특징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어시’의 기능과 의미에 관해서는 따로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를 좀더 상세히 하기 위해 다음의 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

(가)

a: 이러면 진실로 앞피 사르미 물 긴거늘 보다니 일즉 비호디 아니호니 오
늘우터 알와라 <상 35b-36a>

b: 이러면 진실로 在前에 일즉 사롬의 물깃기롤 보와시되 일즉 비호디 아니
호엿더니 오늘부터 알괘라 <상 32ab>

c: 이러면 진실로 在前에 일즉 사롬의 물깃기롤 보와시되 일즉 비호디 아니
호엿더니 오늘부터 알괘라 <상 32ab> .

d: 과연 진실로야 저 적의 건너 사롬의 물깃기롤 보와시되 일즉 시험치 못
호엿더니 오늘 또 알괘라 <상 44ab>

e: 내 이전의 사롬의 물깃기롤 보와시나 비호지 못호엿더니 오늘 시험하니
야 시러곰 찌챿노라(2:26b)

f: 이러면 내 전에 사롬의 물깃기롤 보와시나 일즉 비호지 못호엿더니 오늘
부터 긫 비호되(2:23a)

g: 과연 진실로야 저 적의 건너 사롬의 물깃기롤 보와시되 일즉 시험치 못
호엿더니 오늘 또 알괘라 <상 32a>

《노걸대》, 《박통사》의 이본들에는 특별히 일기의 변화를 언급하는 문장에 ‘거다’ 등이 통합되는 예가 많다. 또 (11)의 (가)처럼 새로운 상황의 도래를 언급하는 문맥에서도 ‘거/어’ 등을 많이 볼 수 있다. 즉 어떤 새로운 상태로의 돌입, 혹은 어떤 새로운 동적 사태의 발생 결과 나타난 상태의 변화가 기준시점에 관여적일 때, 많은 경우 ‘거다/어다’가 사용됨을 볼 수 있다. (11)(가)의 ‘알괘라’는 화자가, 발화시 직전 사태에 의해 몰랐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의 기준시점 관여성이란 것은 기본적 성격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차이를 보이면서 나타난다. 일기의 변화, 전제되었던 상황의 변화, 어떤 상황의 일단락 등 여러가지 양상으로 전개됨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¹⁶⁾

16) 이와 관련한 ‘거다/어다’의 화용론적 기능에 관해서도 따로이 자세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러한 기준시점 관여성의 실현 양상은 대부분의 경우 앞서서도 잠시 지적했듯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분포상으로 볼 때 한 사람이 이어가는 발화의 가장 첫머리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몇몇의 경우는 발화의 가장 끝에 위치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대략적인 경향을 지적한 것인바 절대적인 분포라고는 할 수 없음을 여기서 잠깐 지적해 두기로 한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준시점 관여성이라는 특징은 '거다/어다'가 왜 감동법 범주와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기도 한다. 어떤 기준 시점에서의 화자의 의식, 어떤 특정한 장면에 처해 있는 화자의 의식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그 **장면과 관여적인 사태에 의해 초래된 변화된 상태(상황)**이다. 감동법 범주로 표지되는 것의 대상이 화자의 의식에 현저하게 두드러진 사태가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화자의 의식의 지평에 두드러진 사태 혹은 그로 인해 초래된 변화된 상황을 언어화한다는 점에서 '거다/어다'와 감동법이 실현시키는 대상은 공통점을 가지는 것이다. '거/어'가 '확인', '강조' 등의 의미를 지닌다는 기존의 설명들, 그리고 확인법과 감동법의 범주의 구분이 많은 경우 쉽지 않다는 것 등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1)의 (가)는 이러한 경우를 잘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앞에서도 언급한 '거다/어다'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특징 역시 '거다/어다'와 감동법 범주와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한 근거가 된다. 화자의 주관적 느낌을 표출하는 감동법의 범주가 그 속성상 일반적으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되기 어려움은 자명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다음의 예들은 흥미를 끌 만하다.

(12)

(가)

17) 영어에서 완료가 느낌표를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핫뉴스의 경우 많은 경우 완료형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가 보편적임이 참조된다. 한편, '거다/어다'의 이러한 감동법적 쓰임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본래적인 것이기보다는 문맥 교정의 효과 등에 의한 파생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 a: 이 슬위 슬윗바윗 밧 돌이 히여디도다 <하 36ab>
 - b: 이 슬위 슬윗박희 밧 도리 해야디거다 <하 32b-33a>
 - c: 이 슬위 슬윗박희 밧 도리 해야디거다 <하 32b-33a>
 - d: [해당 문장 빠짐]
 - e: 이 슬회박희 허리지거다 <7:2a>
 - f: 이 수리 박희 히여졌다 <7:2a>
 - g: 이 슬위 슬위박희와 살이 브러져시니 앓가올샤 <하 34b-35a>
- (나)

- a: 우리 황호 다 풀오 정히 도라갈 황호 사려 혀 헤아림 일덩티 몰헛얏더 니 마치 도히 네 올서 <하 66a>
- b: 우리 황호 다 풀고 정히 도라갈 황호 사려 혀 헤아림을 덩티 몰헛얏더 니 마치 도히 네 올샤 <하 59b>
- c: 우리 황호 다 풀고 정히 도라갈 황호 사려 혀 헤아림을 덩티 몰헛얏더 니 마치 도히 네 올샤 <하 59b>
- d: [해당 문장 빠짐]
- e: 우리 화물도 다 풀얏다 네 이제 와심으로 우리 대되 의논혀 르슴 화물 을 사셔 가져 가면 쵸호리오 <8:15b>
- f: 우리 다 물화롤 프랏다 덩히 도라가고져 혀 가져갈 물화 사기롤 의논 혀거니 맞지 네 왔다 <8:15a>
- g: 우리 貨物을 다 풀고 正히 저기 貨物을 사 도라가려 혀 商量혀 덩 치 몰헛얏더니 맞치 쵸히 네 오나다 <하 61b>

(12)(가)는 ‘도다’와 같은 감동법과 ‘거다’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12)(나)역시 이러한 범주에 드는 예인데 ‘올서’, ‘왔’, ‘오나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에서 연원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같이 우리는 ‘거다/어다’에서 ‘거/어’가 가지는 기능이 다른 환경에서의 ‘거/어’의 기능을 밝히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백화문에서 ‘了’의 기능이 기준시점 관여성의 완료 등을 나타낸다는 점, 그것이 ‘거다/어다’가 나타나는 문장의 원문에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가 명령형에 나타나는 ‘거/어’의 예이다. 명령형도 종결형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거다/어다’의 ‘거/어’와 가질 수 있는 관련이 연결형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을 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반적인 가정을 방증하는 것으로 우리는 백화문에서도 역시 명령형에 ‘了’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백화문에서도 이 ‘了’는 통합되기도 하고 통합되지 않기도 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것은 국어 명령형에서의 ‘거/어’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다만 《노걸대》, 《박통사》류에서 이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명령형에 ‘거라/어라’등이 통합된 예 자체를 찾기 힘들다는 상황¹⁸⁾과도 관련되는 듯하다. 우리의 논의를 연결어미에 포함된 ‘거/어’와 관련해서도 확대시켜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우리는 지금까지 《노걸대》, 《박통사》 이본들에 나타나는 ‘거다/어다’에서의 ‘거/어’에 관심을 한정하여 이본들간의 비교와 다른 시상 형태소와의 상관관계등을 중심으로 ‘거/어’문법사의 한 측면을 조망해 보았다. 1.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미 15세기에 ‘거/어’는 그 본래적 성격이 상당부분 변화된 존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결형의 그것은 그래도 근대국어의 상당기간 동안에도 15세기에서 연원한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다’가 18세기말까지도 출현했던 것은 이채로운 일이다. 그러나 ‘거다’는 《노걸대언해》이후 ‘엇다, 어시나’에 의해, ‘어다’도 결국은 18세기를 본격적인 시작으로 ‘엇다’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엇’으로의 대체의 시작은 ‘거다/어다’가 보이는 기준시점 관여성의 시제적 의의와 ‘엇’의 완료적 기능이 연계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엇’이 상대적으로 분포를 넓혀가는 와중에 있었던 범주인데 비해 ‘거/어’는 변화의 말단에 위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8세기 무렵부터 형식은 본격적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음지라도(‘어다’가 ‘엇다’ 등으로) 그 기능은 새로운 형식에 의해 상당기간, 적어도

18) 《노걸대》, 《박통사》류의 명령형은 ‘(으)라’가 통합되는 형이 많다. 이 경우 많은 경우 원문의 명령문에 ‘着’이 통합됨을 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부까지도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대국어의 ‘있’에 의해 완료가 표지되는 문맥에서 이러한 쓰임의 연원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종결형에서의 ‘잇느’의 대체형인 ‘잇’ 역시 18세기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여 과거시제를 표지하는바 ‘거다’의 대체형인 ‘엇다’와의 형식상의 동일성이 18세기를 시작으로 초래되기 시작한다. 현대국어에서 문맥에 따라 ‘잇’이 완료로 해석되기도 하고 과거시제로도 해석되기도 하는 이유는 이러한 통시적 발달의 면면에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거/어’의 기능을 ‘일정 사태의 기준시점 관여성(‘거다/어다’의 경우 발화시)’를 표지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부정법이 나타난 종결형과 어떻게 시제적 차이를 보이는지를 부정법 실현 종결형 자체와 그 대체형식 등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예를 근거로 설명했으며 대체형식(잇)의 어떠한 측면이 ‘거/어’의 기능과 연관되어 대체형식으로 자리매김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거/어’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있어 ‘거/어’ 포함 문장의 성격이 해당 백화문 원문의 ‘了’ 포함 문장의 성격에 의해 더 분명하게 들어남을 살펴보았다. 백화문장 끝의 ‘了’는 완료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 잘 알려진 바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잇’의 문법화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거/어’는 화용론적인 관점에서든 따로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생각되며 이 환경에서의 ‘거/어’가 ‘기준시점 관여성’을 표지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다른 환경의 ‘거/어’, 특히 감동법과의 관련성을 일정한 시각 하에 설명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많은 경우 ‘거/어’가 포함되었다고 생각되는 감동법 형식과 종결형 ‘거다/어다’형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것은 화자가 처한 장면에서 화자의 의식에 두드러진 사태의 그 장면과의 관여성을 언어화 한다는 점에서 두 범주의 연속성이 확인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였으며 여기서 확인되는 ‘거다/어다’의 감동법적 기능은 본래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파생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다른 환경에서의 ‘거/어’의 기능과 관련하여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명령법과의 관련도 생각해볼만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좀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거/어’는 일정한 범주의, 환경에 따라 달리 진행되는 통시적 발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범주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거/어'가 보이는 감동법적 기능 역시 '거/어'의 오랜 통시적 발달선상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본고에서는 논한 '거/어'의 기능은 어디까지나 '거다/어다'라는 환경에서의 그것을 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경에서의 '거/어'의 기능과 관련하여 좀더 총체적으로 '거/어'의 기능을 생각해 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거/어' 포함 연결어미와 관련하여, 연결어미 포함 문장과 연결어미 후행 문장의 관계에 있어서 '기준시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기준시점 관여성'이라는 특징을 좀더 폭넓게 해석한다면 연결어미에 포함된 '거/어'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논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꽤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0), <중세어의 활용에 나타나는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 《국어학》 9.
- _____(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탐출판사.
- 김소희(1996), 《16세기 국어의 '-거/어-'연구》, 《국어연구》 142.
- 리의도(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 이현희(1989), <국어 문법사 연구 30년(1959-1989)>, 《국어학》 19.
- _____(1994), 《중세국어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최동주(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허 용(1975), 《우리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Bybee, Joan., William Pagliuca, and Revere Perkins(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o, Yuen Ren(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 종결형의 '거/어'가 연결형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문맥에서 유지되었던 것은 이러한 감동법 범주와의 기능 교차에 의한 부분적인 기능변질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 Dahl, Ö(1985), *Ten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oper, Paul & Sandra A. Thompson(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251-99.
- Li, Charles N. & Sandra A. Thompson(1981), *Mandarin Chinese: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